

## SERMON TRINITY 22 MAY 2016

### Romans 5:1-5, John 16:12-15

오늘은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짧은 휴가를 선택하거나 또는 다른 급한 용무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여기에 있어서 행운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우리가 오랜 신학적 용어들에 휘말릴 수 있는 날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이해 시킬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측면 중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루입니다.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삼위 일체 주일은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부활출현 후, 그리스도의 승천, 오순절, 그리고 오늘 삼위 일체 주일 입니다. 이 이후 우리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며 긴 성령 강림절 기간은 교회력의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은 아마 어쩌다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도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의 인격인 복된 삼위일체인 하나님 전에 cherubim 과 seraphim 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언어들 다 이해하기가 힘든 많은 언어들 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의 인격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셨다는 것에 관한 것, 그러나 저는 초대교회 신부들이 씨름해온 그 개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합하기 전에, 잠시 멈춰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본능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 경우에 따라 어머니를 포함하면 넓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종종 현대의 발명으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등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 입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향할 믿음의 중심으로 강조할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사로 잡힌 상상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삶에 에너지를 주고 이끌고 갑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것들 중에 하나를 다른 것 보다 더 볼 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가지가 하나로 가는 두뇌의 마술묘기와 같은 것 일겁니다. 우리는 세가지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한 쌍, 이진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검은색과 흰색, 옳고 그름, 왼쪽과 오른쪽, 딱딱하고 부드럽고, 짧고 길고, 등 등. 아주 자주 옳고 그름의 차원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쉽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를 다른 하나 보다 더 선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더 쉽게 다룹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하나로, 그것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 한 것과 우리에게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예수님께서 지지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성령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시는 약속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가 하나인 것으로 보기에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가지를 다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 분 이시라는 것을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을 유일신교의 전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세계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뿐인 진실한 하나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하나이신 하나님의 개념은 수세기가 지난 후 인 전세계의 기독교로 묘사된 위치에 서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직 최근에 우리주위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종교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종종 우리의 이웃인 힌두교, 시크교도, 불교 또는 다른 종교를 향해서 우월성을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유일신교의 신앙은 그들을 구분시키고 분리시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통치권은 로마였습니다, 그 능력 있는 제국은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 지를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안에 신들과 그들의 회당의 다른 신들을 가졌습니다, 황제들이 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직 유일신을 선언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 셧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처음 세 개의 복음서들에서, 그 자신 스스로 이름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자식의 신분은 그의 제자들이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서는 히브리서 성경에 많은 참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가 아닌 사실 세 가지 다른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 삼위” 라는 말이 성경에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이 마지막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을 하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삼위의 교리는 4 세기 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훨씬 전부터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작용했던 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325 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니케아 의회가 소집되면서 다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의 다른 부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다스림 동안 어떠한 분열이나 불일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첫 번째 공인된 신조 어떻게 하나님이 세분이 하나가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회의가 일어나야 하는 것과 그들이 언어를 해결 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힘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니케아 신조는 381 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사도 신경은 8세기부터 아마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동일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투쟁이 사실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마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발견한 것을 그냥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은 이런 신조의 진술에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정말 우리 개인 신앙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무엇을 적을 것 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흥미 있는 연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 삼위 일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관해서 좋아한다면 그것은, “헤드라인”에 있습니다.

제가 Charles Sturt 대학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과 함께 몇 주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삼위 일체는 그들이 우리로부터 설명듣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 어떻게? 무슬림은 모하메드의 신성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아주 큰 도전입니다. 심지어 믿음의문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겐 아직도 “세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의미하는 우리가 그 단어를 주로 사용할 때 각각 개인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다른 시간에 다른 모습을

가진다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은 셰익스피어 같은 영화나 연극에서 배우가 마스크를 그들의 얼굴 앞에 가리고 다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묘사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아마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자, 구원자, 부양자.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종종 이야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점은 삼위 일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느냐가 아닙니다. 반면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한 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 장소가 삼위 일체가 역사 하는 곳 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성에 관한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세가지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 정신 그리고 영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느낍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우리 삶의 매일의 문제들 가운데 두 가지 모순 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몸들은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신체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절실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신체는 굉장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활동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설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결정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고, 직장에서, 집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신체들은 함께 우리의 관심을 요구 합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또한 이것이 인생을 의미하는 것 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더 깊이 궁핍해합니다. 우리는 어떤 더 신비로운 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보도록 허용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일상과 활동들 보다 더 많은 의미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굶주림에 대해 찬양으로 적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의 공간을 채울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들의 모든 노력들은 증명하지만 몸짓은 약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공간을 인식함으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더 많은 필요의 굶주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조금씩 공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공간은 또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굶주림에 관한 것 입니다, 관계를 위한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은 우리를 정박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공백들을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들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 사이에게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상실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엇인지를, 우리 삶은 무슨 목적을 가지는지를 상기 시켜주는 표지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나이에서나 단계에서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들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돌봄을 받던 안정된 장소에서 정시에 약을 복용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었던 젊었던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식과 변장을 통해서 보는 우리를 이해 하는 사랑에 굶주려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필요이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다정하게 그 / 그녀를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형상의 공간 안 에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삼위 일체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상관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정적인 “하나” 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세가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연결되어있습니다, 사랑의 동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되살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삼위 일체는 때때로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부양자의 춤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새로움을 만드시고, 우리가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삼위 일체는 사랑의 에너지 입니다. 삼위 일체는 집행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재창조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이 멀어 볼 수 없거나 우리의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 너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할지 모름을 느낄 때, 우리가 우울해하고 또는 실패 감으로 염려할 때, 이 사랑이신 관계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인내심으로 기다리시고, 옳은 순간이 올 때 우리 귀에 속삭이시길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어깨를 두드릴 준비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 보도록 하시고 어떤 것 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임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은, 삶의 원천과 지혜 그 이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나누고 우리세상의 고통을 길을 걸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치료와 정의 평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아직도 역사하시고, 권한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 이 하나님은 진정하나님의 존재에 관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관계는 독점적이거나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전달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관계들의 사랑과 우리 공동체의 돌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보다도 역시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좋은 창조물 안에 한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지구와 경외감을 주는 우주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며 관계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명이 그 안에서 갑자기 계속되는지를 봅니다, 가능한 곳에서 채용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죽었을 때, 대부분 더 많은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 예로 나무들이 불이 난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부활하는 삶의 멋진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낭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불리어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삶과 세상의 우리 주위에 현실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굶주림이 충족되고 우리의 영혼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질 수 있을 만큼까지 닿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신조의 진술들을 만들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세기를 통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사람들과 연결 하려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절대 압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과의 사랑과 관계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누구이시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느끼시던 그것은 삼위 일체의 모든 것에 관한 것 입니다.